

##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동료 혹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특히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이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지원군이다. 비록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영화 '나쁜 녀석들'이다.

글 편집실

# 범죄와 싸우는 경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2020)>



###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친구이자 파트너

인생을 범죄자 소탕에 다 걸은 경찰들이 있다. 매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슬아슬한 일상이지만 나쁘지 않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 가 있으니 말이다. 영화 ‘나쁜 녀석들(Bad boys)’ 시리즈가 17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지난 시간만큼 영화 속 두 형사도 나이를 먹어 50대다. 은퇴가 코앞이다. 마약 수사반 형사 마이크 로리(윌 스미스)와 마커스 버넷(마틴 로렌스)은 여전히 포르쉐를 몰고 마이애미를 질주한다. 두 사람의 키키타카는 그 대로다. 다른 점은 시간이 지나 마커스는 손자가 생겼고, 마이크는 수염까지 염색한다는 점이다.

운전 실력은 그대로지만 안경은 필수다.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몸을 보니 세월이 야속할 뿐이다.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고픈 마커스도 이해된다. 마커스만큼 현장에서 뛰고 싶은, 마음만은 청춘인 마이크도 이해된다.

결국 마커스의 은퇴를 막기 위해 내기를 제안한 순간 마이크는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조직의 위협을 받게 된 마이크는 파트너 마커스, 젊은 경찰로 구성된 루키 팀 AMMO와 함께 힘을 합쳐 거대 조직을 쫓는다.

오랜 시간 강력범죄를 담당해온 만큼, 두 주인공은 은퇴 외에 다른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바로, 경찰과 소방관 등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 무감각해지는 일상, 가족과 사회 지지가 중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일차 원인이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모두가 이 질환을 겪지는 않는다. 실제 이 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6.7% 정도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큰 사건이나 사고 경험이 많은 경찰과 소방관에게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극도의 우울감이나 분노 또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경찰이 45% 늘어났다. 또한,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찰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꿈, 기억 등을 통해 사건을 계속 다시 경험하거나, 대인 관계에서의 무감각 또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쉽게 놀라거나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거나 자주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 집단치료 등의 치료도 효과적이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환자들이 가족과 지인에게 경험한 사건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사건과 관련된 지속적인 자극을 회피한다.
- 과민해지고 화가 많아졌다.
-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단서에 노출될 때마다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있다.
-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그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떠오른다.
-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다.

#### TIP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거나 명상,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